제주 '셋째아 이상' 출산 전국 최고

통계청 '2018년 출생통계' 발표

제주 합계출산율 1.22명… 전국평균 0.98명
새생명 4781명 중 셋째아 이상 비율 13.8%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심화된 가운데 제주는 최근 20~40대 젊은 층의 인구 유입 등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물론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가 타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2017년 35만7800명에 견줘서도 8.7% 급락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출생아는 895명 수준이다. 이에 따른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36개 회원국(평균 1.65명) 가운데 가장 낮다.

시도별 출생아수는 세종(5.7%)만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17개 시도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세종(12.5명), 제주(7.3명), 울산(7.1명) 순으로 높고 강원(5.4명), 전북(5.5명), 부산(5.6명)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세종(1.57명)과 전남(1.24명), 제주(1.22명)가 높은 반면 서울(0.76명)과 부산(0.90명)이 낮다. 지난해 제주에서 4781명(제주시 3745·서귀포시 1036)이 태어났다. 1일 13명꼴이다.

연령별로 출산율이 높은 시도는 20대 후반은 세종, 충남, 전남 순이고 30대 초반은 세종, 전남, 울산 순이며 30대 후반은 세종, 제주, 전남 순이다. 제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76세로 전국평균 32.80세와 비슷하다. 또 결혼 후 2년 이내인 1.93년(전국평균 2.16년)에 첫째아이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는 제주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의 5.4%에 견줘서는 2.6배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4.5명으로 2017년 107.6명 견줘서는 3.1명(전국평균 -0.9명)이 줄었다.

제주의 연간 순유입 인구는 30대·40대·20대 순으로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7명, 2011년 23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110명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학교폭력 피해 늘었다

교육청 2차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 36%·따돌림 23%
10건 중 7건 '학교 안' 발생

제주지역에서 신체폭행 등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한달간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온라인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전체 응답 학생(5만4875명)의 2.2%인 1214명으로 집계돼 2018년보다 0.6%p, 2014년보다는 0.9%p 증가했으며,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5.0%(939명), 중학교 1.1%(198명), 고등학교 0.4%(77명)였다. 피해 유형별 응답률은 ▷언어폭력 35.9%(694명)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23.1%(446명) ▷신체폭행 8.5%(165명) ▷사이버(휴대전화)괴롭힘 7.8%(150명) ▷금품갈취 7.1%(138명) ▷스토킹 7.1%(137명) ▷강제 심부름 6.4%(123명) ▷강제추행·성폭력 4.0%(78명) 순이었다.

피해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72.5%(162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교 밖은 21.3%(477명)로 집계됐다. 학교 안의 경우 ▷교실 30.7% ▷운동장 13.8% ▷복도 13.8% ▷급식실·매점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 33.4% ▷점심시간 19.5% ▷하교 이후 13.8% 순이었다. 표성준기자

경찰 권총 수령중 공포탄 격발 사고

경찰 3대 자체사고 가운데 하나인 '총기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무기고에서 A(24)순경이 실수로 권총을 발사했다. 발사된 탄환은 다행히 공포탄이어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A순경은 저녁 근무에 나서기 위해 무기고에서 총기를 수령하다 실수로 권총을 격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는 해당 지구대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전 지역경찰에 유사사례 재발방지 교육 및 38권총 안전고무판 노후 상태 확인에 나섰다. 아울러 A순경과 해당 지구대 무기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B경위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송은범기자

거짓 증언 50대 벌금형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특수상해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석기자

비오는 날에도… 용두암과 제주바다 즐기기 관광객들이 28일 비가 내리는 궂은날임에도 제주시 용담동 산책로에서 용두암과 제주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제주경관을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수습기자

제주 A형간염 환자 1년새 7배 ⬆

보건소 "젊은층 발병률 높아 더욱 주의해야"

특별한 치료제 없어 예방책은 접종·위생 준수

제주지역 A형간염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A형간염 발생환자는 전국 1만302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48명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시 환자는 35명으로 작년 6명에 비해 29명이 증가했다. 제주도 전체 A형간염 환자는 51명이다.

환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환자 35명 중 20~40대가 33명으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A형간염은 주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감염된 후 15~50일(평균 28일)의 잠복기 후에 발열,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황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A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 간염 바이러스(HAV)에 의해 발생하는 간염으로 주로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염되는 질병이지만 생활환경이 개선된 현재에도 항체보유율이 낮은 20~4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형 간염은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고 백신접종과 개인위생 준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A형 간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20~40대 젊은 층의 항체보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병·의원에서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30대 여성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져

경찰 운전자 2명 검거

30대 여성이 차량 두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인근 동쪽 200m 도로에서 A(33)씨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를 B(49)씨가 몰던 승용차와 C(35)씨가 운전하던 1t 화물차가 차례로 치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가해 차량들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날 운전자 2명을 모두 검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경찰, 음주운전 대대적 단속 돌입

"9월부터 상시 단속할 것"

경찰이 음주 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지역경찰과 합동으로 9월부터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교통경찰은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추가로 추진한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경각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제주도내 음주운전 사고 감소율은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전국 7215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13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16%만 감소했다. 또 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국은 131건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반면 제주는 전년 대비 동일하다.

특히 지난 21일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변 화단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노부부를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자보다 재범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할 방침"이라며 "경찰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도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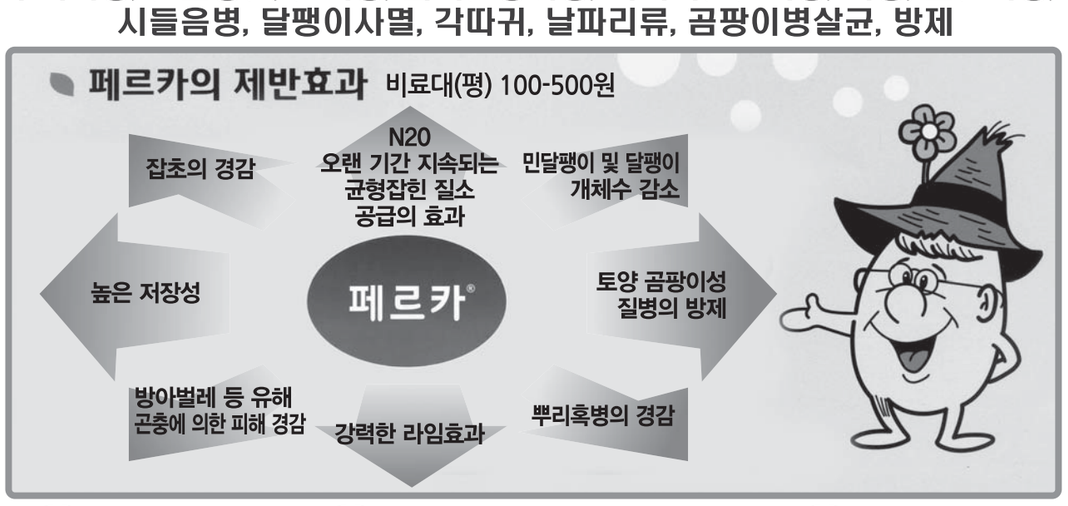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엽면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양배추 브로컬리 무우 양파 농가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브로컬리 양파·배추 (500㎖당 500배 희석)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 자	· 1차 살포 : 싹이 10~15㎝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 우	· 1차 살포 : 싹이 10~15㎝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 늘	· 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